김영록 지사 "코로나 확산 차단 총력" 지시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n차 감염이 빠르게 진행

방역상황 점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목포시 상황실을 방문, "이번 주말동안 감염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방어막을 구축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부터 목포에서만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한 확진자를 시작으로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상황 확인을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

김 지사는 "전남에서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n차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이전과 같이 성숙한 도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감기증상으로 오인해 외부활동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아프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과 밀폐시설 이용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 오후 1시 까지 순천 11명, 광양 3명, 목포 3명, 나주 4명, 여수 2명, 담양 1명 등 24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전남지역 총 누적 확진자는 346명이다.

지역별로 나주에선 전남 287번 관련 3명, 광주 571번과 접촉해 1명이 추가 발생했다. 담양에서도 광주 571번과 접촉으로 1명이 확진됐다.

광양에선 순천 신한은행 지점 관련 1명, PC방 관련 2명이 추가됐다. 순천시에선 지역 마을 관련 5명, 기업체 등 관련 4명이 발생됐고, 나머지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여수에선 서울 임용단기학원 관련 등 2명이 확진됐으며, 목포시에선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546번 관련 3명이 양성 판정받았다.

전라남도 동부권 역학조사 공동협력팀은 지역감염 고리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 즉각대응팀과 합동으로 불명확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12월 3일 수능시험을 대비해 전라남도는 확진 수능생이 발생할 경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전담병원 시험장을 확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장재성 의원, 광주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과로사로 인한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점점 증가해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일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및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청사, 그 밖에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택배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최첨단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 가동

전남은 최근 나주시 혁신산단내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이 신축돼 도축부터 경매까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축된 공판장은 나주 왕곡면 나주혁신산업단지 내 7만4천㎡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면적 2만1천㎡ 규모로 구축됐으며, 최첨단 시설을 갖춰 도축을 개시했다.

일일 도축물량은 소 150마리와 돼지 1천 200마리 규모며, 소 100마리와 돼지 800마리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특히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생축 수송 차량과 식육 운반 냉장차량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해 터널식 소독시설 3개를 설치했으며, 급냉터널과 여러 공간의 개별 예냉실이 설치돼 고기 품질 향상과 경락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경매장은 지육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지육에 관한 정보를 대형 모니터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첨단 경매시스템도 구축했으며, 기존 나주축산물공판장은 지난 1991년부터 나주 운곡동에 위치해 29년간 도축장을 운영해왔다.

전남은 노후화된 도축시설의 신축 이전과 '제값 받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 2016년 농협경제지주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4년만에 신축시설이 문을 열었다. 농협경제지주는 그동안 848억 원을 투입했다.

도내에서 생산된 한우가 타 지역으로 출하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경매 활성화와 운송비 절감을 이끌어 축산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산지 축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해 유통구조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타지역으로 반출되면서 운송비 손실과 질병확산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충장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개소

광주 동구 충장동 주민자치회(회장 여근수)는 지난 20일 동 행정복지센터 내 3층에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새로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행정복지센터 3층 일부를 리모델링한 주민자치회 사무국은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해 마을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내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과회를 생략했으며 거리두기 의자배치, 체온측정, 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구,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경영환경개선비 지원

광주 서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추진한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시행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경영개선 컨설팅지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컨설팅 진단결과를 시설개선 부분에 반영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업체별 최대 2백만원까지 구에서 지원하고 소요금액의 20%를 자부담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선정된 17개업소에는 쾌적한 매장환경을 위한 간판교체와 내부인테리어 개선 분야 지원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과점의 대형반죽기, 꽃집의 리본 인쇄장비 등 매장운영에 필수적이며 매장 특성에 맞는 장비구매 및 시설교체등이 지원됐다.

남구, 도시가스 없는 농촌마을 '에너지 격차' 줄인다

광주 남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농촌마을인 대촌동 원산마을에 전국 자치구로는 최초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에너지 연료인 LPG 용기와 등유 등을 사용해왔던 원산마을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이 크게 줄어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남구에 따르면 원산마을 36세대를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공모에서 남구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북구, 언택트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2차 교육생 모집

광주 북구는 어제까지 '인공지능 매치업 온라인 교육과정' 2차 교육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북구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맺은 '인공지능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고자 운영된다.

교육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입문(AI기초수학, AI기초프로그래밍)·공통(심층학습, 기계학습입문) 2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광산구, 민·관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광주 광산구가 지난 20일 공무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수완동 국민은행 일대에서 불법광고물 근절 민·관 합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불법 광고물을 안내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 받는 불이익을 알리는 자리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상가·점포 등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안전·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형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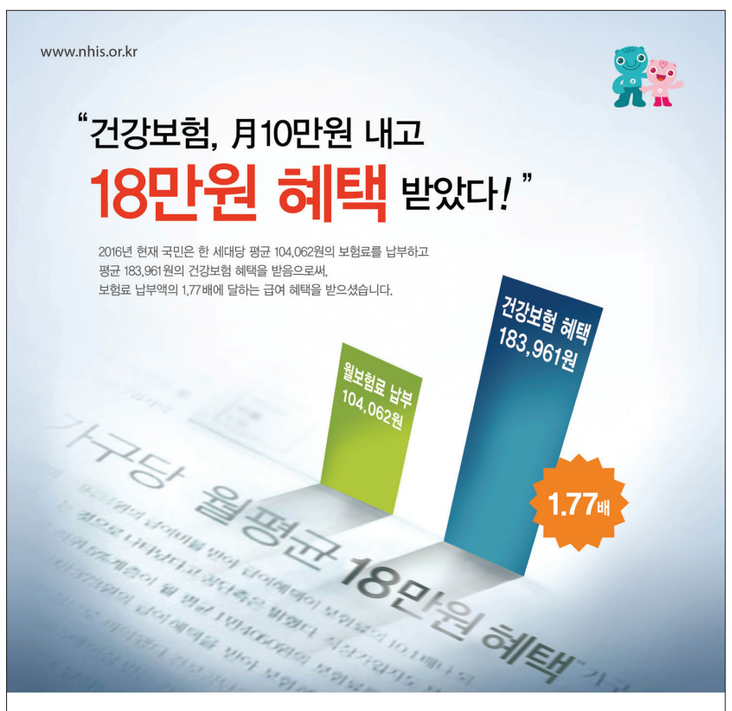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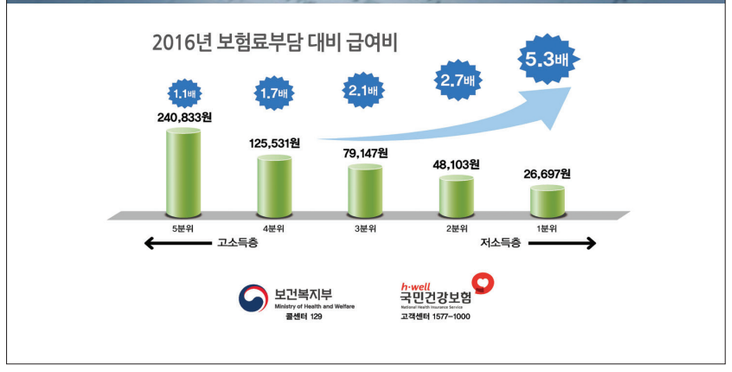
분 실 공 고

무안 승원팰리체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분실명 : 무안 승원팰리체아파트 101동 1104호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 강성선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524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차정오 (420301-1639316)
최 후 주 소 : 전남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123-6, 505호(벌교제석아파트)

위 망 차정오 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11월 23일

공 고 인 : 차은정, 차종필, 차호영, 차호성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0, 11동 203호(비산동, 뉴타운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11월 12일
공 고 기 간 : 2020. 11. 23 ~ 2021. 1. 23